

# 해외출장(프랑스-파리,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 요약

부서 : 도시모니터링센터

자료제공 : 변 미 리

작성일 : 2023년 10월 24일

게시요망일 : 2023년 10월 25일

## 제목 : [해외출장노트] 서울 도시정책지표의 구축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파리과 잘츠부르크 출장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1) 출장 목적

- 서울의 도시정책지표체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을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도시정책지표 설계 및 분석 영역은 2003년 계속 사업으로, 도시정책지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통계를 생산하여 시계열적인 도시모니터링 체계를 유지·보완하는 포괄적인 연구임. 발주부서인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은 도시모니터링지표로서의 역할 강화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세계 도시들의 도시지표 동향 파악과 이를 통한 지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다양한 조사방법론을 통한 서울 도시의 역동성 비교 분석 등을 과업 내용으로 강조해 옴. 특히 과업 중 하나로 도시환경 변화 및 시정관련 다양한 이슈들의 심층분석을 통해 서울도시의 변화와 사회상을 그려내길 요구하고 있음
- 파리 출장의 목적은 도시연구기관들의 모니터링지표 활용 현황 파악과 도시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계획됨. 파리도시개발공사(SEMAPA)와 파리시정연구소(APUR)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 도시사회연구 동향과 도시모니터링 지표 사례를 수집하여 서울 도시정책지표에의 적용 및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잘츠부르크 출장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개최하는 WAPOR(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세계조사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미래 기술 중심사회에서의 조사방법론 트렌드와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정책지표의 활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임

### 2) 출장 내용

#### (1) 도시환경과 공간의 변화 및 사회의 다양성 변화

- 파리도시개발공사(SEMAPA: Société d'E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Paris)는 1985년에 조직된 민관혼합회사로 건축, 재정, 기술, 법률,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파리도시개발공사는 파리의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시, 건축, 조경, 환경 연구를 수행하고, 도시 프로젝트의 실행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임
- 파리도시개발공사는 도시공간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개발과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파리의 도시프로젝트(예: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주거(사회주택), 오피스, 공공기관(국립도서관, 대학, 학교, 병원 등), 상점, 극장, 공원 등 여러 건축 프로그램들이 융합되어 있고 연결된 공간을 만들고자 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공간적 융합을 위해 고급주택과 사회주택이 섞여 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사회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고 보육시설 등의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어 저출산 현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환경 및 탄소 저감 등을 위해 건물 주변의 녹지 및 오픈공간 조성과 보행친화적 거리 조성, 목조나 석조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을 위해 설명회와 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도시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며, 도심개발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상이 이루어져야 함. 환경과 조경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과 접근성도 중요함. 안전성은 물론 도심속 예술이나 액티비티 등 도시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모두 중요함

## (2) 코로나19 이후 도시모니터링 변화와 파리의 융합도시 지향

- 파리시정연구소(APUR: L'Atelier parisien d'urbanisme)는 1967년에 파리시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협회로 도시 계획 및 공공 공간 정책을 기획하고, 파리 지역의 도시 및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특히 파리의 사회변화 관련 모니터링을 하는 각종 통계자료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 파리시정연구소는 사회 및 도시 문제에 중점을 두고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 자료 및 수집된 데이터는 인터넷에 문서 또는 자료로 공개하고 있음. 파리시정연구소 조직 안에 모니터링 부서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현상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새로 생김. 동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대해 3개월마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파리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통계청 행정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기도 함
- 코로나19는 비교적 최근 이슈이나 몇 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신뢰성있는 자료 분석이 가능해짐. 교육청 자료를 통해 학교나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자료를 통해 정부보조금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시민들의 이동이나 상황변화 파악 가능, 통계청 센서스 자료를 통해 인구변화조사나 이동 규모 등에 관한 파악이 가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생활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이동의 변화, 사람들의 사회적 연계(solidarity)의 지속성과 연결강도 등을 연구하고 있음
- Apur 홈페이지에 '관측소'(Observatoires)라는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코로나19 이후 파리의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함. 파리의 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문제와 새로운 요구사항을 강조하거나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파리의 사회위기의 영향과 관련된 주제별 심층 연구를 장려하고 있음

- 최근 발간한 'MIXITÉ SOCIALE ET SÉGRÉGATION DANS LA MÉTROPOLE DU GRAND PARIS : ÉTAT DES LIEUX ET TENDANCES SUR 15 ANS(2023)' 보고서는 통계청과 협력한 연구 사례로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메트로폴 뒤 그랑 파리 인구의 37%가 가장 혼합된 지역에(mixité), 21%가 가장 분리된 지역(ségrégation, 가구의 소득 수준이 매우 비슷하거나 높거나 낮은 지역)에 거주. 마지막으로 42%의 인구는 가장 분리된 지역이나 가장 혼합된 지역에 속하지 않은 중간 상황에 있는 지역(intermediaire)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는 계층 간 분리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함을 피력함.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나, 사회주택 정책, 도시재생사업, 고급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지역 형성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음
- 그 외 APUR는 최근 새로운 연구 주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아이돌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미래 인구변화와 관련해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중임

### (3) 미래 기술중심사회의 조사연구 동향

-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의 제76차 연례 컨퍼런스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잘츠부르크 파리 로드론 대학교 주최로 개최되었음.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기술 중심 세계에서의 여론>으로, 빠르게 가속화되는 기술이 제시하는 사회의 도전과 기회를 고려할 때 여론조사들은 오늘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변화하는 여론조사의 최신동향과 한계들, 그리고 비확률 표본과 AI는 여론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빅데이터 분석의 과제와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다룸
- '코로나19와 여론조사'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는 'COVID-19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추적'이라는 주제로 한국리서치가 3년간 격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설문조사를 소개하고 주요 결과들을 발표했으며, Benjamin H. Detenber 교수(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외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의 개인의 이동성'이라는 주제로 3개 국가의 인지와 태도, 행동에 관한 연구사례를 발표함. 디지털 기술, 특히 모바일 미디어에 따른 대중 정서의 진화와 불평등 등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논의되었음
- 소셜 미디어 연구 세션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연구 및 방법, 기술 사례들을 소개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어포던스(공유, 좋아요, 댓글 달기 등)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대중의 참여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난, 위기와 관련된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의 범람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주시함. Emmanuel Adugu 교수(University of West Indies)는 '환경적 태도, 기술 및 소셜 미디어 어포던스 넥서스 탐색'을 주제로 발표함. 배수영 교수(University of Massachusetts)는 '소셜 미디어의 담론적 전술을 통한 온라인 영향력 활용'을 주제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상호 작용과 정보 흐름의 역학에 중점을 둔 연구를 발표함
- 그 외에도 여론조사의 발전과 여론조사에서의 디지털과 AI 발전을 주제로 한 세션들에서는 기술 중심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로 여론 조사와 인구 조사 데이터 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미래 기술중심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여론조사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AI 등의 기술이 가져오는 조사 연구의 과제에 대해 탐구함

### 3) 정책 시사점

- 파리의 도시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은 지속가능성이며, 계층 간 분리된 도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계층들이 공존, 공유하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따른 도시의 대응을 위해 도시모니터링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통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트렌드와 예방을 위해 사회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한 신호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지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함
- 도시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사회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존의 통계적 행정데이터와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뢰성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미래 기술중심 사회에서 도시모니터링지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분석, 빅데이터 분석, AI 활용 등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와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시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모니터링센터 변미리 센터장 (2149-1303)